

2013년 5월 12일

Date

No.

오늘은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러갔다.
 친구가 영화무늬티켓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서
 돈 하나도 안들이고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.
 또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참 ~~재미~~ 친구하나 잘드셨다
 라고 생각했다. 친구랑 영화가 끝나고 맛있는 것도
 먹어 가고, 정말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친구랑 얘기도 하고
 즐거운 하루였다. ~~이런~~ 화요일은 주말이 끝나고 내일 학교에
 갈 생각을 하니 좀 서운하지만, 그래도 이주말을
 나름대로 의미있게 보내서 참 좋은 하루였다.